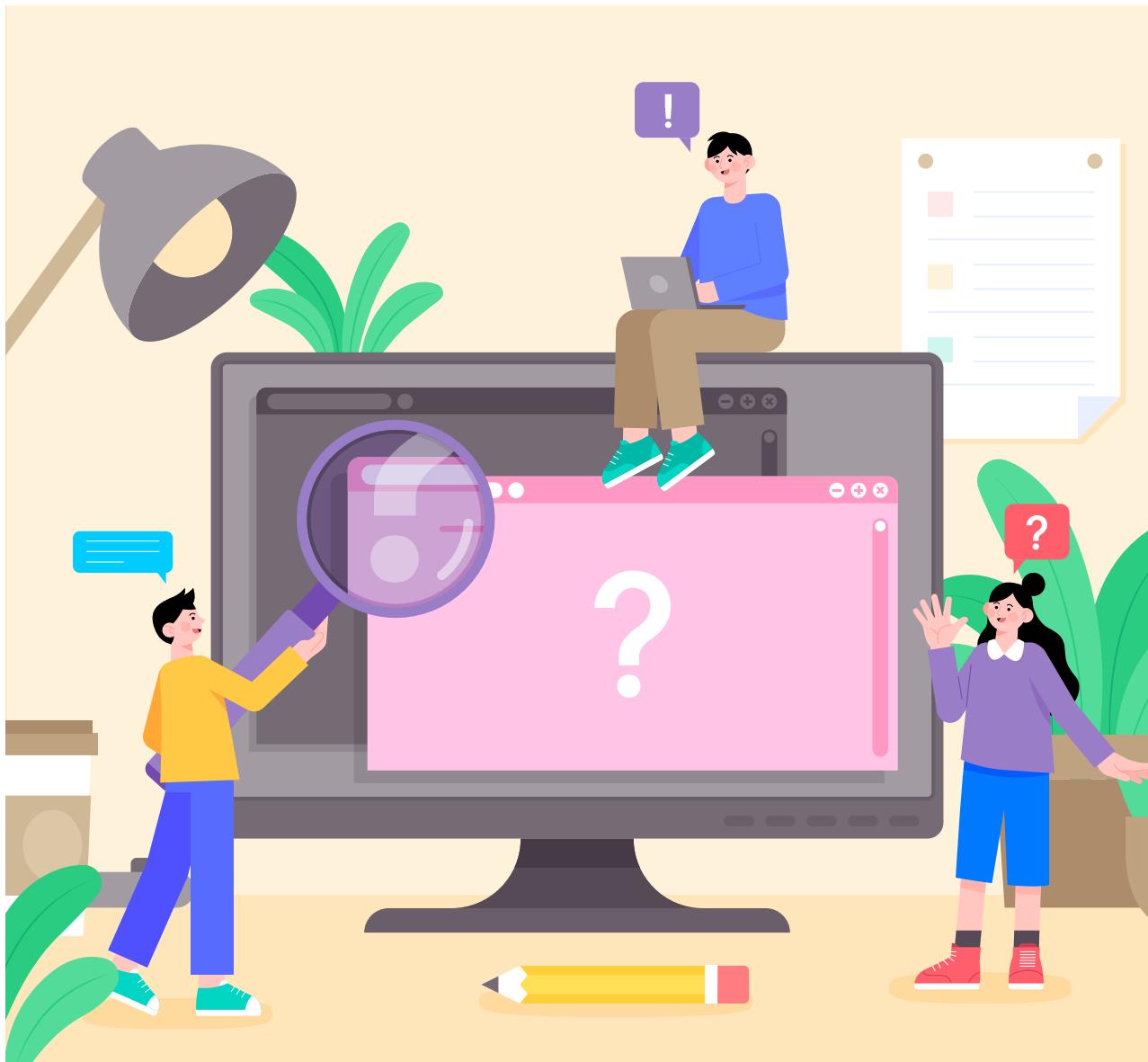


# 참사람 36.5°C

Vol. 24 | 2023년 1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 CONTENTS 목차



04

## 발행일

2023년 1월 3일 화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http://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http://chamsaram.org)

교보교육재단 소식지 Vol. 24

참사람 36.5°C

2023년 1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Cover Story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아마도 ‘질문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  
계획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질문 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사랑의 마스크**  
글 \_ 참사람 독자 구민아



09

책으로, 참사람으로  
 ‘쇼코의 미소’를 읽고 :  
 당신의 삶을 만나게 해 준 책갈피  
 글 \_ 인천 신송고등학교 전연우

‘쇼코의 미소’는 어떤 책?

글 \_ 오윤주  
 수월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12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문화력을 쑤욱!**  
 청소년이 가장 헛갈리는  
 국어 어휘 투아보기



14

2022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네컷툰 수상작품 소개



18

2023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 모집



16

미래 스포츠 리더 육성에  
 팔 걷었습니다!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  
 2기 증서 수여식 개최



19

교보교육재단  
 2022 ‘장애인먼저실천상’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 질문할 줄 아는 힘

## - 내 안의 물음표를 찾아서

'질문'이라는 화두에 항상 회자되는 뉴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 열린 G20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입니다. 당시 여러 국가의 기자들이 앞 다투어 질문경쟁을 벌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좀처럼 나서지 못했던 국내 기자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베푼 것이지요. 한국말로 해도 괜찮으니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라 했지만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오바마는 'no taker?'라고 수차례 물어보다 결국 중국의 기자에게 질문 기회가 넘어 갔었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으로 나간 다음, 질문하지 않는 우리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 위대한 발견의 시작, 질문!

우리는 하루에도 수 백번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다수에게도 질문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은 질문의 연속이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류 역사의 발전도 역시 질문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질문의 반복 끝에 도달한 진리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명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는 질문(방법적 회의)의 과정을 거쳐 '생각을 하는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러한 데카르트의 질문 탐구는 근대문명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당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의 현상에 의문을 품으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대부분은 질문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의 중요성

왜 질문이 중요할까요? 질문이란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과정입니다. 지식과 이해도가 0에 수렴한다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것이 '메타인지(meta認知)'입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해결책을 찾기에 적합한 질문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발명왕 아인슈타인은 질문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나는 우선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55분을 쓸 것이다. 일단 적절한 질문을 알기만 한다면 문제 해결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뜻이지요. 결국 문제(모르는 것)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또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질문능력!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사례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 학교, 회사 등 사회의 많은 집단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피곤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인간을 ‘호모콰렌스 Homo quaerens(질문하는 인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질문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다이애나 바이틀러는 미래형 인재덕목을 5가지(5C : 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 컴퓨터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로 언급하면서 “호기심에서 다양한 질문이 탄생하고, 질문이 모여 비판적 사고력이 형성되며, 비판적 사고력은 창의력으로 연결된다.” 말합니다.

### 나를 성장시키는 질문

인간의 뇌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론교육입니다. 토론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은 상호 질문하고 대답하는 교육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교육이 하브루타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니?’라고 묻지 않고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니?’라 묻는다 합니다.

학교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유대인의 교육방식은 결국 콘텐츠가 아닌 ‘질문’이라는 방법이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한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3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지요. 이 계획들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질문’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루에 한 번씩 질문 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 2015년 광화문 글판, 메리 올리버의 ‘휘파람 부는 사람’ 중



2022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사랑의 마스크

글 \_ 참사람 독자 구민아



"저... 복지담당자 어딨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2020년 가을. 내가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  
남루한 차림의 60대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찾아오셨다. 낯이 익던 할머니를 어디서  
뵈었던지 떠올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분은 매일 새벽 마을 쓰레기 수거장소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셨다. 가끔 일찍  
출근 하는 날이면 그 분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신 채로, 마치 밥

담는 공기마냥 온 열과 성을 다해 쓰레기통을 깨끗이 닦고 계시고는 했는데 어찌나  
열중하시는지 가끔은 인사를 건네도 듣지 못하실 정도였다.

할머니는 손에 검은 비닐봉투를 꼭 쥐고 나를 찾아오셨다. 상담실로 할머니를  
안내하고 의자에 마주앉았다.

"이거..."

어떻게 오셨냐는 나의 질문에 할머니는 들고 계시던 검은 봉투를 조용히 건네셨다.  
안을 살펴보는 나를 보며 할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여셨다.

"내가 요기 앞에 클린하우스를 매일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조금씩  
받아요. 나 쌀 좀 사고, 전기세 내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니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달이 모아보니 이 정도가 모아져서 가지고 있어요. 요새 마스크가 비싸던데,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마스크 좀 사줘요. 나는 무식해서 그 많은 마스크를 어디서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봉투 안에는 흰색 비닐이 겹겹이 감싸여 있었는데, 이를 벗겨보니 다시 5만 원권이  
두툼하게 담긴 은행 봉투가 나왔다. 꼼꼼한 포장 상태만 보아도 할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 그 돈을 들고 오셨을지 짐작이 되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사주라는 할머니의 얼굴을 감사고 있는 것은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꽂무늬 천 마스크였다.

당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값은 폭등했고 비싼 돈을 주고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급기야 정부에선 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두었고, 우체국이나 농협 등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매일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한 장에 200~300원 하던 마스크가 하루아침에 1500원, 인터넷에서는 그 배로도  
가격이 뛰었다. 한마디로 마스크 전쟁이었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만 상황에서 그  
비싼 마스크를 사지 못해 별 수 없이 바이러스 차단기능이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많았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야 비싼 돈을 주고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나마 저렴하게 판매하는 우체국, 약국  
등지에서 1500원짜리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발품을 팔고 기다려야만 했다.

본인은 낡은 천 마스크를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걱정하며 큰돈을 내미는 할머니의 모습은, 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보여주는 행동양식은 참으로 제각각이다. 마스크 대란 끝에 절도나 다툼과 같은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할머니의 마음씀씀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

학창시절 우리는 윤리시간에 성선설과 성악설을 배웠었다. 나는 성선설도 성악설도 다 틀렸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은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거나 선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본디 그 두 마음은 우리의 안에 있지만, 어떤 것을 꺼내어 쓰는가는 결국 본인 몫이 아닐까?

내가 쓸 마스크 한 장을 위해 범법을 저지를 것인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들게 번 돈을 스스럼없이 내미는 할머니처럼 살 것인가. 이번 일을 통해 나는 내 속에 어떤 나와 함께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성찰했다.

할머니가 주신 돈은 무려 천 만 원이었다. 어렵사리 업체와 계약하여 대량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스크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었다.

요즘은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나 또한 구호단체 등에 정기후원 하나씩은 하고 있다. 나의 것을 타인과 나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의미일 수 있겠지만, 내 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선에서 베풀는 기부와 넉넉하지 않는 사정에도 기꺼이 내 일부를 떼어 어려운 이들에게 건넨 마음의 무게는 분명 다를 것이다. 할머니를 바라보며, 헌신을 담보로 한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생각해본다.



# '쇼코의 미소'를 읽고 당신의 삶을 만나게 해 준 책갈피

글 \_ 인천 신송고등학교 전연우



"응. 응. 알았어. 몸조리 잘 해. 또 전화할게."

평소에도 아침에 온 전화벨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죠. 밤새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이 강제로 귀로 쏟아지는 것 같다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평소 무릎이 좋지 않으신 외할머니가 어젯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고 여러 군데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입원을 하셨다는 전화였으니까요. 싫어하는 뺑 대신 국과 밥으로 바꿔달라고 투정을 부리던 저는 슬며시 눈치를 보며 얼른 뺑을 입에 우겨넣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독서 시간에 수행평가 과제로 읽을 책을 꺼내면서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추천 목록 중에 집에 있는 책이 있는지 보다가 당신의 책꽂이에서 들고 온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는 평소 당신의 습관대로 포스트잇이 여러 군데 붙어있고, 밑줄도 있습니다. 책을 깔끔하게 보는 저와는 달라 앞에서부터 읽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당신이 밑줄 친 부분을 펼쳐 읽어봅니다.

'이십대 초반에 엄마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만난 인연들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얼

굴들이 아직도 엄마의 인생에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 하지만 어떤 인연도 잃어버린 인연을 대체해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의외로 생의 초반에 나타났다. 어느 시점이 되니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관계의 첫 장조차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p. 115

열아홉 살 수능을 치고 처음으로 친구 동생을 가르치는 과외를 시작했고,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친구를 못 만들었다고 얼핏 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3학년 때 아버지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대학 친구들은 지금은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그건 엄마가 성격이 까칠해서 아니야?라는 나의 농담 섞인 말에, 당신은 운전을 하면서 무심하게

"새벽까지 과외 하느라 바쁜 것도 있었고 고3때 집이 망해서 친구들이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난 동생 학비 벼는 데 개들은 뭐랄까, 다른 세상사는 것 같았다고. 하긴 스무 살 대학생 세계에서는 내가 다른 세상에 살았겠지만."

평소 너 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래라, 지금 아니면 친구는 못 만들어, 하시는 말 뒤에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스스로 없던 친구들과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형식적인 수다를 나누는 삶은 얼마나 공허한 일일까요. 그 통과의례를 저보다 두 살 많은 열아홉 살에 치러야 했던 당신은 그래서 여기 밑줄을 치신 걸까요.

“한 밤을 자고 나서 개집에 가니 곰이 사라졌더라. 그 애가 사라지고 한 달 내내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 울고 또 울었지. 내가 괜히 곰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 곰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아픈 걸 보고 내가 마음 아파하니까 죽으러 나간 거라고 생각하며 책했지. 아무리 슬프더라도 내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울지 말았어야 했는데.”

- ‘언니, 나의 작은, 순애언니’ (p.101)

당신이 나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 죽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진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였고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널 만큼 영리한 개였으며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를요. 책 속의 순애 언니는 전쟁 통에 엄마아빠를 잃었지만 엄마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곰이’라는 개 이야기를 하지요.

가끔 이모를 만나 밤새 나누는 이야기 끝에 불안했던 가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당신은 울지 않습니다. 당신이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울 때는 ‘진이’ 이야기를 할 때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마당에서 뭔가에 쫓기는 듯 집으로 들어오려고 벼둥대는 그 아이를 야단쳤고, 다음 날 사라진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 달이나 시내를 뒤졌지만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2주쯤 지난 어느 날 꿈에서 뒤돌아보며 아득한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 애를 보고 어딘가에서 하늘나라로 갔구나 짐작했다는 얘

기를 할 때 당신은 그 기특했던 진이를 떠올리면서 울고, 또 웃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과 같은 기억을 간직한 순애 언니를 발견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슬프고, 또 반가웠을까요. 자신을 아낌없이 바라봐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도 배신하지 않을 작은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스무 마리가 넘는 개들이 집에 있었지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에게 개는 그 애 하나라고. 이 밑줄 속에서 아끼던 개를 잊고 울고 있는 나와 같은 열일곱 살 여자아이를 만난 기분입니다.

‘가끔씩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면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받곤 했다. 할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당연히. 원래 그렇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 ‘쇼코의 미소’ p.43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듣고 어릴 적 일에 바쁜 딸 대신 자신이 업어 키운 손녀를 찾아갑니다. 손녀는 바쁘다며 할아버지를 그냥 돌려보내고 뒤늦게 손녀와 예순 다섯 밤을 함께 보내고 할아버지는 임종을 맞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외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 시험기간이라 지방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뵙기 힘들 것 같다고요. 하지만,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제 걱정은 말고 더 늦기 전에 시간을 내라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수업종이 칩니다. 나머지는 다음 국어 시간에 읽을 계획입니다. 책에 왜 밑줄을 치냐고 언젠가 제가 물었습 니다. 책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었던 저는 아마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인 그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 다음에 또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도 흔하지 않고. 거기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산다는 건 안심이 되는 거야.”

책을 넘기다 또 하나의 밑줄에 멈춥니다.

‘말자는 지민이 서려움을 모르는 아이로 살기 바랐다. 훌릴 필요가 없는 눈물을 훌리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했다. 삶에 의해 시시때때로 침해당하고 괴롭힘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지민은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기꺼이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미카엘라’ p.254

이 밑줄은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말인 동시에 저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비록 한 시간이지만 당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기분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책에 다른 색깔로 밑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당신의 책장에 꽂아둘 생각입니다. 직접 말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대신해주세요.

‘왜 고작 이런 것 하나에도 그토록 당황하고 행복해했는지 묻는다. 너는 더 좋은 것들을 누렸어야 했다고. 그럴 자격이 있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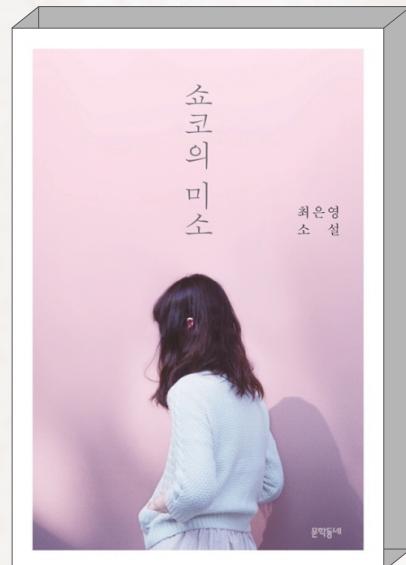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p. 103

## ‘쇼코의 미소’는 어떤 책?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참 저마다 제각각 다른 색깔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자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며, 낯모르는 타인과는 더욱 소통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술처럼 그 문이 열리고, 내가 아닌 타인들과 나인 듯 교감하며 다른 존재로 인해 깊은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되기도 하지요.

최은영의 소설집 <쇼코의 미소>에 실린 여러 단편들은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손을 마주잡게 되는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네가 아니라 내가 되며, 때로 우리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정하고 나지막하게 들려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참 멀고, 높은 경계로 가로막혀 있는 듯 싶지만, 때로 어느 순간 그 경계가 훌쩍 사라지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지닌 마법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여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가끔 쓰기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는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읽는 삶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또 생의 한 페이지를 책과 함께 열어갑니다.

# 문해력을 쑤욱!

— 청소년이 가장 헷갈리는 국어 어휘 투아보기 —

문해력은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매우 중요  
하게 관여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다양한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어휘력’은 문해력의 핵심이자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헷갈리는  
국어어휘를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에서 소개합  
니다.

甚 深  
**심심한 사과**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의 형  
용사 ‘심심하다’와 미안하다는 의미의 ‘사과하다’를  
합하여, ‘매우 깊게 사과를 드린다’는 뜻의 관용구

“제 실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사  
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뜻.  
흔히 ‘지식이 높다’고  
오해하는 표현.

“우리 아빠는 너무 고  
지식해서 어른 없이  
친구들끼리만 콘서트  
에 가는 걸 이해 못  
하시거든.”

고  
지  
식  
하  
다

## 금일

‘오늘’이라는 뜻의 한자어(今日). ‘금요일’과 자주 헷갈린다.

“꼭 가보고 싶었던 그 빵집이 금일부터 영업한다고 하네?”

## 글피

오늘, 내일, 모레의 다음인 ‘삼일 뒤’를 뜻하는 순 우리말.

“오늘이 12월 22일이니까, 글피가 성탄절이겠네!”

## 사흘

세 번째 되는 날을 뜻하는 순 우리 말. 많은 경우 ‘4일 뒤’로 오해한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이나 집에 못 갔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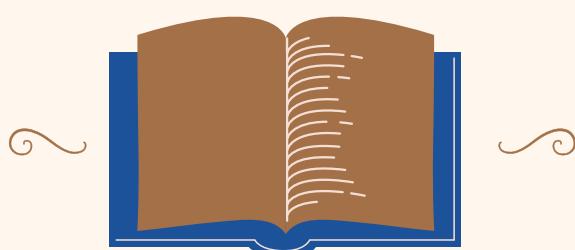
심심하고 지루한 상황을 뜻한다.  
‘공짜’를 뜻하는 무료無料와 자주 헷갈린다.

“학교에 안 가니까 너무 무료하다~”



전쟁이나 경쟁 등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를 뜻하는 한자 어 무운(武運)을 활용,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표현. 없을 무로 오인하여 ‘운수가 없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는 사례가 많다.

“내일 시합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며, 무운을 빌게!”



## 십분 이해하다

‘아주 충분히’를 뜻하는 부사 십분(十分)을 활용한 어휘. 매우 깊게 이해한다는 뜻. ‘십분의 시간 동안 이해한다’는 뜻으로 오독하는 경우가 많다.

“네가 탈락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십분 이해하고 있어.”

# 2022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 네컷툰 수상작품 소개



### 영원한 내 영웅

-글 그림 김나희

김해중앙여중 2학년 김나희



제가 어렸을 적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소문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황당한 소문은 돌고 돌아 눈덩이처럼 커졌고, 변명의 기회조차 없이 비난 받으며 제 멘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당시도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 제 소꿉친구인 '설하'가 나서서 저를 보호해주었습니다. 저의 영원한 영웅 설하는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친구를 그리며 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글.그림 최연우



### 논산여상 3학년 최연우

평소에 잘 전하지 못하였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이번 공모전을 빌어 제 마음을 4컷 만화로 고스란히 전해보려 합니다! 제가 비록 가끔 못난 짓을 해도 항상 제 곁에 있어주신 분들 덕에 이 작품을 무사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 주변에 계신 가족, 친구, 지인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 ★ 미래 스포츠 리더 육성에 ★ 팔 걷었습니다!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 2기 증서 수여식 개최





교보교육재단은 교보생명과 함께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 2기'를 선발하고, 2022년 12월 23일 장학금 증서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교보 체육꿈나무 육성 장학사업'은 체육 유망주의 전인적 성장을 돋고 '참사람 육성'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출신 선수 중 유망주를 발굴해 미래의 바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1기 선발 및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은 유소년 체육대회 후원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리더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날 증서수여식에 참석한 2기 교보 체육장학생에게는 중·고교 6년간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금' 200만원을 매년 지원하며, 이 기간 중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별도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보 체육장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스포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심리 상담, 도서 지원, 북클럽 활동, 선배 멘토링 등 차별화된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부모상담, 가족 소통캠프, 가족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장학생은 물론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심사를 맡은 정윤수 심사위원장(성공회대 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운동 능력에 더해 인성, 성장성, 리더십 등을 고루 살폈다"며, "선발된 교보 체육장학생들이 한국 스포츠를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는 21세기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교보교육재단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 스포츠 리더를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 종목별 2기 교보 체육장학생 명단

육상	체조	탁구	유도	빙상	테니스	수영
권가은 인천논곡초 6학년	진성규 포항제철초 6학년	김대환 능내초 6학년	안혜원 서울송중초 6학년	이비호 서울목동초 6학년	김시아 서울홍연초 6학년	김승원 교동초 6학년
박상현 충주남한강초 6학년	홍현준 여고초 6학년	이현호 포항장원초 6학년	백서영 서울송중초 6학년	진주은 탕정초 6학년	정율호 전주금암초 6학년	김우진 온양동신초 6학년

# 2023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모집

교보교육재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미래 희망을 설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지원과 장학생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희망다솜 장학금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① 보육원/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한 2023학년도 국내 대학 신입생
  - ②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청소년으로 2023학년도 국내 대학 신입생
- \* 지원자격은 ① 또는 ②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장학금(생활비 명목) 지원  
(최대 8학기/학기당 200만원)

## ★ 선발인원

총 20명 내외

## ★ 접수기간

2023년 1월 8일(일) 자정까지

## ★ 접수방법

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사업 '2023 희망다솜 장학생 모집' 선택

## ★ 문의처

☎ 070-8224-7706 / E-mail: [bgj@kbedu.or.kr](mailto:bgj@kbedu.or.kr)

## ★ 심사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별도 통지

## ★ 제출서류

### 서류 접수(아래 서류를 파일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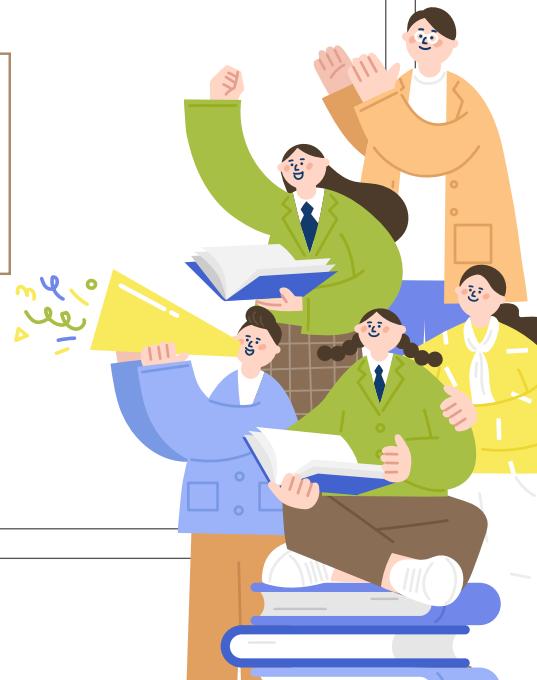
- ① 추천서(신청서 참조/추천인 자격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담임교사 등)
  - ② 학교생활기록부 II 형
  - ③ 증명사진(jpg 및 png 파일)
- \* ①, ②는 PDF 파일로 신청 페이지 첨부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대상자 개별 안내)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대학합격통지서
-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세히 알아보기





교보교육재단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 WBC복지TV가 후원하는 2022 '장애인먼저실천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더불어 행복하기〉 캠프,  
위치 기반의 무장애 정보 〈우리동네 무장애 지도〉,  
장애인 복지시설 나들이 지원 〈눈맞춤 117cm〉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장애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앞으로도 교보교육재단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